

디지털 리터러시에 관한 한국어 학습자와 교사의 인식 조사 연구 —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 상황을 중심으로

린천천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교육과 박사과정(제1저자)

권순희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교신저자)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 방법 및 절차
- IV. 연구 결과 및 해석
- V. 결론 및 제언

I. 서론

디지털 혁명기로 명명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인 현재 우리는 원하는 모든 정보를 언제 어디서든 신속히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검색 엔진은 우리가 원하는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찾는 데 큰 도움을 준다. Friedman(2005: 33)은 이러한 변화를 “World is flat”이라고 말한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인도에 드디어 왔으며 지구가 둥글다(World is round)”라고 왕에게 보고한 말과 대조를 이루는 표현으로 이제 더 이상 세계가 지역적, 지리적 한계에 국한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정보통신기술(ICT)이 급격히 발달하면서 정보 사용, 생산 및 공유를 위한 다양한 신기술 개발, 다중텍스트 및 미디어 등의 디지털화를 향해 빠르게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헤엄치고 있는 현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원하는 정보를 찾아내는 기술뿐만 아니라, 분별력 있는 정보 선택, 선택한 정보를 비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논리적인 정보 재배치의 기술 등이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 정보 리터러시, ICT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등과 그 범위가 겹치며 여전히 많은 영역에서 용어를 혼용

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미디어 리터러시와 디지털 리터러시의 관점에서 주로 접근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어교육에 초점이 있는바, 학문 목적 학습자가 학업 수행을 위해 디지털 공간에서 스스로 정보를 찾고 이용하여 비판적 사고력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면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이 용어를 선택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확산에 따라 국어교육에서 미디어 교육에 대한 여러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한국어교육에서는 여전히 미흡한 편이다. 한국어교육에서의 미디어에 대한 연구는 구성이나 활용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미디어와 하이퍼텍스트, e-러닝, 웹 기반 교재 등 미디어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 교육 방향성과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학문 목적 학습자의 학업 수행 양상을 살핀 연구를 통해 학문 목적 학습자가 정보 이용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양순우(2010)와 민진영(2013)에 따르면 많은 학문 목적 학습자가 학업 관련 정보를 찾는 것 자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열(2011)은 한국어교육 연구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의 활용 가능성을 제안한 연구로, 인터넷 활용 능력이 학업 성취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학문 목적 학습자의 학업 수행 능력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학문 목적 리터러시 교육이 단순히 텍스트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디지털 환경에서의 정보 이용 능력을 목표로 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제2언어 교육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한가에 대한 논쟁 또한 있다. 전영의(2018)는 멀티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한국 문학에 대한 중국인 학습자의 반응을 분석하였다. 대부분의 중국인 학습자는 멀티미디어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정작 수업에서 멀티미디어의 도구를 활용하는 데 성공적이지 못하였고, 미디어를 활용한 수업의 교수-학습 목적이 명확하지 않아 학습자들의 반응이 크지 않았다. 전미화(2014)는

기존의 쓰기 교육에서 주어진 참고자료의 내용을 학습자가 어떻게 잘 통합하고 활용하는지에만 주안점을 두고, 주제에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검색하고 활용하는지는 포함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제2언어로 한국어를 학습하는 학습자들에게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학습에 대한 부담 증가가 될지도 모른다는 주장과 정보 이용 능력은 반드시 학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게 된다는 의견 사이에서 과연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교사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교사 간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실행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한국어 학습자의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태도, 한국어 수준, 언어권, 모국어(또는 제1외국어)의 디지털 리터러시 경험은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이해 정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인터넷 접근 및 활용 능력은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이해 정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인지 요인¹⁾은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이해 정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1) 2장에 디지털 리터러시의 하위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인지 요인에 자기주도적 탐구 능력을 새롭게 설정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 및 확장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용어는 Gilster(1997)가 처음 사용하였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미디어·디지털·정보·ICT 리터러시는 21세기 필요 역량으로 가장 많이 논의되고 개념화된 리터러시들이다. 이들은 기존 리터러시 개념과 달리 디지털 언어에 기반을 둔다는 점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와 공통점이 있지만, 약간의 차이점도 있다. 여러 리터러시 중에서도 특히 미디어 리터러시는 디지털 리터러시와 가장 많이 혼용되고 있는 개념이다(김현진·김현영·김은영·류향승·김보운·박희락 외, 2020: 473).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를 통해 정보에 접근(access)하고, ‘뉴스 리터러시’, ‘유튜브 리터러시’, ‘메신저 리터러시’ 등의 파생 개념에서 알 수 있듯 특정 미디어의 사용에 초점을 두고 인지적 측면에서 언어를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이와 달리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공간에서 디지털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한다. 학문 목적 학습자는 학업 수행을 위해 특정 미디어를 활용하여 언어적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보다 디지털 공간에서 스스로 정보를 찾고 이용하여 비판적 사고력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디지털 리터러시²⁾에 기반한 한국어교육이 학문 목적 학습자의 요구에 좀 더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을 더 명백하게 이해하기 위해 국내외 여러 학자들의 연구를 살펴보고 한국어교육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2) 디지털 매체와 테크놀로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 지식, 비판적 사고력과 함께 문제해결,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한정선·오정숙, 2006).

Gilster(1997)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인터넷에서 찾아낸 정보의 가치를 적절하게 평가하기 위해 모든 사용자에게 필요한 비판적인 사고력’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인지적 측면에 머물러 있다. Bawden(2001)은 디지털 리터러시 개념이 ‘기술 기반 리터러시’와 ‘디지털 리터러시’로 구분되며 디지털 리터러시는 또 다시 하이퍼 리터러시, 인터넷 리터러시, 멀티미디어 리터러시 등으로 나뉜다고 보았다. 그는 디지털 시대의 리터러시 개념을 총체적으로 정리하였다. 더 나아가 Bawden(2008)은 Gilster가 제시한 디지털 리터러시 개념을 7가지 주요 차원으로 나누었고 디지털 리터러시의 특징을 인지적 측면 외에도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파악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 한국어교육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정의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한국어교육에서 학자별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정의

학자	정의
최열(2011)	디지털 중심의 환경에서 필요한 정보를 검색, 분류 및 축적하고, 검색된 정보를 비판적 관점으로 분석하고, 능동적으로 재생산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하고, 자원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여 나가는 능력
김시연(2015)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부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까지를 총체적으로 포함하는 개념
김나래(2020)	디지털 환경에서 흩어진 정보를 선별하고, 선별한 정보를 이해하고, 이해한 정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그 내용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전형길(2020)	학습 수요의 다양화 속에서 일상적 의사소통을 초월하는 차세대 한국어교육의 목표를 찾을 수 있으며 한국어 학습자는 매체의 소비, 유통, 생산 과정을 찾을 수 있음, 직접 참여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축적하는 포스트 휴먼의 복합적 인지작용 능력

이상의 디지털 리터러시 개념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문 목적 학습자들이 학업을 성취할 수 있도록 디지털 공간에서 스스로 정보를 찾고 선별하고 비판적으로 인식하며 주도적으로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으로 디지털 리터러시를 정의하였다.

2. 디지털 리터러시의 구성요소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하위 구성요소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디지털 리터러시의 대표적인 선행 연구를 통해 디지털 리터러시를 구성하는 요소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Gilster(1997)에 의하면, 디지털 리터러시 구성요소는 주로 인터넷 검색(internet searching), 하이퍼텍스트 탐색(hypertext navigation), 지식통합(knowledge assembly), 내용 평가(content evaluation) 등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그가 하위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Bawden(2008)은 그의 논의가 여전히 인지적 능력에 그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Fastrez(2009)은 Gilster(1997)의 논의를 구체화하여 디지털 리터러시에는 인터넷 정보를 활용하고 웹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기술 능력도 포함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읽기, 검색, 탐색 영역으로 구성하였으며 디지털 리터러시의 범위를 기술을 사용하여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사회 및 문화적 맥락이 끼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능력까지로 확장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OECD는 문식성, 수리력, ICT / 디지털 리터러시와 같은 기초 소양과 비판적 사고력 및 문제해결 능력과 같은 기능 / 태도 / 가치와 같은 복합 소양을 미래 역량으로 제시하고 있다(김종윤·옥현진·조재윤, 2020: 4). 특히 OECD Learning Compass 2030에는 교육의 미래에 대한 열망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진화하는 학습 프레임워크가 있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핵심요소는 개인과 집단의 웰빙임을 밝혔다. 그리고 학습 나침반 비유는 학생들이 낯선 상황을 통해 스스로 탐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학습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디지털 공간에서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여 스스로 이를 해결하는 것이다. 즉 자기주도적 탐구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디지털 리터러시의 구성요소에 대하여 위의 연구자들이 제시한 내용을 보면 공통적으로 인터넷 접근 및 활용 능력, 자기 탐구 능력을 강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디지털 리터러시 연구 분야에 최열(2011)은 인터넷 활용 능력이라는 용어로 디지털 리터러시를 정의하였는데, 디지털 중심의 환경에서 컴퓨터 기술 활용 능력, 인터넷 정보 활용 능력 그리고 정보공유 인식 및 교환 능력 등의 3가지 영역으로 나뉘서 총 13항목을 포함하여 학습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고, 검색된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을 목표로 삼았다.

이상 디지털 리터러시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들을 총괄적으로 보면, 인터넷 접근 및 활용 능력, 자기 탐구 능력, 비판적 인식, 미디어 참여 등의 단어들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위 연구들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인지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으로 범주화하였다. 인지적 기능에는 인터넷 접근 및 활용 능력, 자기주도적 능력, 비판적 인식 능력으로 세분화하고, 사회적 기능에는 미디어 참여 능력으로 세분화하였다. 인터넷 접근 및 활용은 주로 미디어 콘텐츠를 읽고 활용하여 특정 주제 또는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한 적합한 정보를 검색, 수집하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자기주도적 탐구 능력은 Coiro, et al.(2019)의 논의에서 디지털 매체 기반의 리터러시 탐구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즉 개인의 문제를 스스로 발견해 내고 스스로 정보를 선별하고 해결하는 능력이다. 비판적 인식은 디지털 공간에서 근거가 확실한 정보와 불확실한 근거의 정보를 구분하려는 노력, 더 나아가 제시된 근거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능력이고 필수적인 요인이기도 하다. 미디어 참여는 미디어를 통해 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며, 사회적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미디어 이용 능력으로 여긴다. 미디어 참여 능력은 비록 학문 목적 학습자에게 시급한 능력은 아니지만, 학문 목적 학습자도 궁극적으로는 한국어를 구성하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

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하위 구성요소에 포함하였다. 이 4가지 하위 구성 요소는 학문 목적 학습자가 디지털 정보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로,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앞에 언급한 선행 연구를 근간으로 한 디지털 리터러시의 정의와 구성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학문 목적 학습자를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의 정의 및 구성요소

학문 목적 학습자를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의 정의 학문 목적 학습자들에게 학업을 성취할 수 있도록 디지털 공간에서 스스로 정보를 찾고 선별하고 비판적으로 인식하며 주도적으로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인지적 기능	인터넷 접근 및 활용 능력 (Gilster, 1997; 최열, 2011)	미디어 콘텐츠를 읽고 활용하여 특정 주제 또는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한 합당한 정보를 검색, 수집하는 능력
	자기주도적 탐구 능력 (Coiro, et al., 2019; 김종윤 외, 2020)	개인이 자신의 문제에 기반하여 탐구하는 능력과 각자의 요구와 필요로 인해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 내고 많은 데이터 속에서 정보를 선별하고 평가하고 답을 찾아가는 능력
	비판적 인식 능력 (김종윤 외, 2020)	비판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확실한 근거가 있는 정보와 근거가 불확실한 정보를 구분하려는 노력, 더 나아가 제시된 근거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능력
사회적 기능	미디어 참여 능력 (Fastrez, 2009)	사회적 의사소통을 통한 사회적 참여와 더불어 시민 리터러시나 시민역량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요인으로 책임감 있는 미디어 이용 능력

3. 한국어교육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의 필요성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현재 한국어교육 현장에서는 아직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시급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지 않다. 그리고 이에 선행되어야 할 학문 목적 학습자에 관한 연구 또한 미비하다. 한국에서 유학하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에서도 그들이 한국 사회의 미디어 환경에서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김재희·이은희,

2019).

전재은(2016: 39)은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률은 평균 5.4%(표준편차 6.3)이며,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률이 사립대학과 수도권 소재 대학이 각각 국공립 대학과 지방 소재 대학보다 높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차이검정에서 대학 소재지에 따른 결과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즉, 수도권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률이 지방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률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국내 4년제 대학을 비롯해 전문대학, 대학원, 원격 대학 등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재적수가 2019년을 기준으로 160,165명인 것(백두산, 2019)을 생각하면 8,000여명의 중도탈락 학생을 예측해 볼 수 있다. 학문 목적 유학생들의 중도탈락 문제의 해결이 시급한 가운데, 한국어교육은 시대의 변화와 학습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새로운 방식의 디지털 미디어교육을 위해서는 디지털 미디어의 기술적 특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이를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또한 고민해야 한다.

Weninger(2019)는 제2언어와 관련된 연구들에서 뉴미디어와 디지털 문학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였다. 이러한 외부 환경의 변화가 어린 학습자의 삶의 여러 측면에 반영되었다. 물론 전통적 읽기와 쓰기 능력이 외국어 교육의 중심(重心)에 자리 잡고 있지만, 디지털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외국어교육에서 읽기와 쓰기 능력과 멀티미디어를 통합한 디지털 리터러시를 교육과정에 넣을 것을 주장하였다. 전형길(2020)은 외국인 학부생을 대상으로 초점그룹인터뷰(FGI)를 실시하여 이들이 유학 생활 중 경험하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분석하여 현재 한국어 학습에서 수행되고 있는 다양한 의사소통 과제의 내용과 교육 자료로 제시되는 예시 담화들의 내용이 보다 디지털 미디어에 기반한 과제와 담화로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변화된 학습 환경에 따라 학문 목적 한국어교육 또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학문 목적 학습자의 지식을 형성하고 한국어 능력과 정보 이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기반으로 한 학문 목적 한국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방안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단순히 디지털 기기를 도구로 사용하는 교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공간에서 미디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교육을 의미한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디지털 공간에서 미디어의 사용 방법 및 특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미디어에 접근하여 스스로 정보를 찾는 것을 가능하게 하며 인터넷상에서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선별하며 이를 토대로 미디어 맥락 안에서 의사소통 능력과 자기주도 탐구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 그러나 디지털 리터러시가 갖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그 개념이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려면, 먼저 한국어 학습자와 교사가 디지털 리터러시에 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학습자들은 디지털 리터러시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III.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 대상 및 표본

한국어 학습자와 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인식 및 요구 분석을 위해 수도권 A와 B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한국어 학습자 100명과 학교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어 교사 30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본 설문 조사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2021년 1월 10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설문에 응답한 학습자 및 교사의 분포는 아래와 같다.

〈표 3〉 학습자의 성별, 연령, 등급, 언어권 분포(단위: 명)

구분	성별		연령				한국어능력등급				언어권 ³⁾		
학 습 자	남	여	20 세 이 하	20 ~ 25 세 이 하	25 ~ 30 세 이 하	30 세 이 상	3급	4급	5급	6급	중 국 어 권	베 트 남 어 권	영 어 권 외 ⁴⁾
	44	56	2	55	36	7	19	19	22	40	41	32	27
총	100		100				100				100		

〈표 4〉 교사의 성별, 연령, 경력 분포(단위: 명)

구분	성별		연령				경력			
교 사	남	여	30 세 이 하	30 ~ 40 세 이 하	40 ~ 50 세 이 하	50 세 이 상	5년 미만	5 ~ 10년 미만	10 ~ 15년 미만	15년 이상
	14	16	6	11	8	5	12	8	5	5
총	30		30				30			

- 3) 2020년 학위과정 유학생 수는 113,003명(73.5%)이다. 주요 국가별 유학생 비율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교육부가 발표한 '2020년 교육기본통계 결과 발표'를 참조함).

국가	중국	베트남	일본	몽골	미국	기타
비율	52.4%	17.0%	1.7%	4.6%	1.2%	23.2%

국가별 학위과정 유학생 비율에서 상위를 차지하는 국가는 중국어권과 베트남어권, 그리고 기타 범주에서 절반 이상 비율을 차지하는 국가가 미국을 포함한 영어권 국가들이기에 언어권의 대표성을 중국어권, 베트남어권, 영어권 외로 설정하였다.

- 4) 영어권 외로 범주화한 국가는 미국(10), 영국(8), 캐나다(2), 독일(3), 프랑스(2), 스페인(1) 러시아(1) 등이다.

또, 디지털 리터러시 인식과 관련해서 실제 상황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한지 살펴보기 위해서 추가로 한국어 학습자 10명과 교사 3명에 대한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심층 면담에 참여한 한국어 학습자들은 모두 한국에서 재학 중인 대학원생들로 한국어능력시험(TOPIK) 고급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출신 국가는 중국(9명), 러시아(1명) 등이다. 심층 면담에 참여한 교사들은 모두 한국어교육을 전공하였다.

심층 면담은 2021년 2월 22일부터 2021년 3월 18일까지 이루어졌으며, 면담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하였다. 면담에서는 사전에 예상 질문을 갖춘 구조화(structured) 방식을 활용하였다. 면담은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첫째 참여자의 학교 인근에서 만나 실시하였고, 둘째 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하였다. 전체 면담 시간은 180분이었고, 총 녹음 시간은 131분이었다. 심층 면담에 참여한 학습자 및 교사는 아래와 같다.

〈표 5〉 심층 면담 참여 학습자와 교사⁵⁾

정보 참여자	성별	나이	소속	국적	특성
학습자 A	여	27	A 대학교	중국	- 한국어 능력(TOPIK) 6급 - 한국 거주 기간 6년 - 학업성취 우수
학습자 B	여	25	A 대학교	중국	- 한국어 능력(TOPIK) 5급 - 한국 거주 기간 3년 - 의사소통의 어려움 존재
학습자 C	여	24	A 대학교	중국	- 한국어 능력(TOPIK) 5급 - 한국 거주 기간 4년
학습자 D	여	25	A 대학교	중국	- 한국어 능력(TOPIK) 5급 - 한국 거주 기간 2년 - 학업성취의 어려움 존재

5) 엄격하게는 대학에서 강의하는 강사 또는 교수를 일컬으나 학습자와 대를 이루기 위해 교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학습자 E	여	24	A 대학교	러시아	- 한국어 능력(TOPIK) 5급 - 한국 거주 기간 1.5년 - ICT에 대한 관심이 있음
학습자 F	여	24	A 대학교	중국	- 한국어 능력(TOPIK) 6급 - 한국 거주 기간 5년 -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모국어 경험 있음
학습자 G	여	26	A 대학교	중국	- 한국어 능력(TOPIK) 5급 - 한국 거주 기간 1년
학습자 H	여	28	A 대학교	중국	- 한국어 능력(TOPIK) 6급 - 한국 거주 기간 4년
학습자 I	여	24	A 대학교	중국	- 한국어 능력(TOPIK) 5급 - 한국 거주 기간 2년
학습자 J	여	23	A 대학교	중국	- 한국어 능력(TOPIK) 5급 - 한국 거주 기간 3년
교사 A	여	52	B 대학교	한국	- 경력 16년 - 한국어 글쓰기 수업 담당
교사 B	여	50	A 대학교	한국	- 경력 15년 - 한국어 문법 수업 담당
교사 C	남	54	B 대학교	한국	- 경력 18년 - 고전문학 전공수업 담당

더불어, 면담의 중점 내용은 (1)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학습자 및 교사의 인식 (2) 디지털 리터러시 인식에 학습자의 한국어 숙달도가 미치는 영향 (3) 학습자들의 모국어 디지털 리터러시 경험이 한국어 디지털 리터러시 이해 정도에 미치는 영향 (4) 한국어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학습자들의 태도 등과 같은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2. 설문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조사 도구는 국내외 대학의 디지털 리터러시 현황 조사 관련 설문지와 관련 문헌(김종윤 외, 2020; 노은희·신호재·이재진,

2019; 장은우, 2014; 전형길, 2020; 최열, 2011; Coiro, et al., 2019)을 기반으로 디지털 리터러시의 하위 구성요소를 더 구체화하여 개인 배경, 인터넷 접근 및 활용 현황,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인식, 태도 및 경험,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비판적 인식 능력, 미디어 참여 등 한국어 학습자와 교사 디지털 리터러시 인식에 관한 5가지 요소에 대해 총 학습자 36문항과 교사 34문항으로 구성되었다(〈표 6〉 참고).

설문의 내용을 보면 인터넷 접근 및 활용 능력에 관한 질문으로 문항은 다음과 같다. ‘미디어를 사용하는 빈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⁶⁾ ‘정보 검색 사이트 잘 이용할 수 있다’, ‘정보가 전달하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인터넷을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자신이 있다’,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여러 매체를 통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등의 문항으로 최열(2011)과 장은우(2014)를 참고하여 재구성하였다. 설문 문항의 신뢰도를 점검한 결과, Chronbach's α =.902로 나타나 매우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인식, 태도와 경험을 측정하는 문항은 다음과 같다. ‘학교교육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해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국어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이 한국의 대학(원) 입학 후 학업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교과 수업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의 필요성이 있다’ 등의 문항으로 노은희 외(2019), 장은우(2014), Coiro, et al.(2019)를 바탕으로 선별하여 제작하였다. 신뢰도를 점검한 결과, Chronbach's α =.872로 나타났다며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탐구 능력 및 비판적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은 다음과 같다. ‘과제해결을 위해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를 분석하여 재생산할

6) 인터넷 사용 빈도에 관한 설문 문항 10개를 만들고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 체크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 얻은 여러 정보 중에 나에게 가장 유용한 정보를 구분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 얻은 정보의 진위를 구별할 수 있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통한 학습자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향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미래 학습 역량⁷⁾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로 이 문항은 김중윤 외(2020)과 Coiro, et al.(2019)를 바탕으로 선별하여 측정하였다. 신뢰도를 점검한 결과, Chronbach's $\alpha=.822$ 로 나타나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미디어 참여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은 다음과 같다. '사회적 이슈에 대한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관심이 있는 글이나 정보를 인터넷에 올리거나 공유한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자신의 온라인 공간에 올린다', '미디어를 이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다',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 을 인터넷에 올린다'로 최열(2011)을 참고하여 측정하였다. 신뢰도를 점검한 결과, Chronbach's $\alpha=.798$ 로 나타나 신뢰할만함을 확인하였다.

학습자와 교사 설문지는 크게 선택형 문항, Likert 5점 척도로, 응답 범위는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로 구분되어 있다. 선택형 문항은 빈도 분석을 실시했으며 Likert 5점 척도 문항은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평균을 구하였다.

〈표 6〉 설문 도구의 요소 및 조사 내용 구성⁸⁾

요소	문항 내용		문항수
개인 배경 변인	학습자	국적, 성별, 연령대, 한국어 수준, 소속	5
	교사	성별, 연령대, 학력, 경력	4

7) 설문지 문항에서 미래 학습 역량은 학습자 스스로 정보를 찾아보고 판단하고 문제를 탐구하는 능력을 설명하였다.

8) 본 연구에는 학습자와 교사가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문하기 전에 먼저 연구에서 사용한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을 설명하였다.

인터넷 접근 및 활용 능력	학습자	멀티미디어 기기 보유 정도, 인터넷 사용 빈도, 사용 목적 및 이용 시간	5
	교사		4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인식, 태도와 경험	학습자	교과 수업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모국어의 디지털 리터러시의 학습 경험	12
	교사		12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탐구 능력 및 비판적 능력	학습자	인터넷상 스스로 탐구 능력과 인터넷의 정보에 대한 구별력	10
	교사		8
미디어 참여	학습자	인터넷상에 정보 공유 및 참여 빈도	4
	교사		6

3.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교사 간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실행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고 멀티미디어 기기 접근성, 한국어 학습자의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태도, 한국어 수준, 언어권, 모국어(또는 제1외국어)의 디지털 리터러시 경험이 디지털 리터러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순차적 설명 설계의 통합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먼저 이메일과 인터넷 접근을 통해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 여부와 학습자와 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 대학원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면담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처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와 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와 일원변량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결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Duncan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둘째, 학습자의 언어권, 한국어 수준 및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태도, 경험(또는 제1외국어)과 디지털 리터러시 이해 정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셋째, 인터넷 접근 및 활용

능력과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이해 정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모두 유의수준 $p<.05$ 에서 검증하였으며, 코딩(coding) 과정을 통해 전산 입력하고 IBM SPSS for 20.0을 활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해석

1.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교사, 학습자 간 인식 차이

한국어 교실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실행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7〉 교실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교사의 인식⁹⁾

		N	평균	표준편차	F	P	Duncan
경력 ¹⁰⁾	5년 미만(a)	12	4.16	.577	3.436	.031*	a>d
	5~10년 미만(b)	8	3.63	.744			
	10~15년 미만(c)	5	3.00	1.41			
	15년 이상(d)	5	2.80	1.30			
	합계	30	3.60	1.04			

* $p<.05$

- 9) 교실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실행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 ‘거의 필요하지 않다’ 1점, ‘보통이다’ 3점, ‘매우 필요하다’ 5점으로 계산한 수치이다.
- 10) 설문 조사에 참여한 교사들은 경력이 높을수록 나이가 많았으며, 경력 15년 이상인 교사들은 모두 나이가 50세 이상이었다. 그리고 심층 면담에 참여한 교사들의 경력은 모두 15년 이상이었다.

〈표 7〉과 같이 한국어 교사들은 전체적으로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대해 평균 3.60점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교사의 경력에 따라서는 2.80점에서 4.16점으로 나타났는데, 경력이 적을수록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실행에 대한 허용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Duncan 사후검증 결과 교사의 경력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경력이 5년 미만인 교사들은 15년 이상 경력의 교사들보다 교실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아 심층 면담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교사 면담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사 A: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때 교수-학습의 우선 순위가 언어 자체를 익히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언어 학습을 교육목표로 삼으니까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중략) 내가 새롭게 배워서 가르쳐야 된다는 점에서 교사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교사 B: 선생님이 그것을 가르친다고 했을 때 선생님도 다시 배워야 하는 입장이고 (중략) 잘못된 것을 가르칠 수 있고 올바르게 않은 것도 가르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것에 도전하지 않고 지금까지 했던 것, 안정적인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실행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관련한 교사 심층 면담에서 이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가진 교사들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실행할 경우 오히려 교사와 학습자의 부담이 증가되고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있어서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그러한 태도를 가진 이유는 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지식의 부족, ICT 활용 능력의 부족 등이 있으며, 교사의 제2언어 학습 경험도 이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그리고 ICT 활용 능력이

부족한 교사가 수업 중에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Kagima & Hausafus(2000)의 연구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이러한 결과는 Bull-ock(2004)에서 교사의 인식과 태도가 새로운 기술의 활용, 지식 및 관련 교육의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고 밝힌 것과 일치한다. 위 결과를 요약하면 교실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조사에서는 교사의 경력이 적을수록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8〉 교실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학습자 및 교사 인식

		N	평균	표준편차	F	P	t ⁽¹⁾
교실에서 실행의 필요성	학습자	100	4.81	.614	20.342	.000***	6.07
	교사	30	3.60	1.037			

***p<.001

〈표 8〉과 같이 교실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실행해도 좋은지에 대해 학습자는 평균 4.81로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으나, 교사는 평균 3.60으로 3점의 ‘보통이다’ 혹은 4점의 ‘필요하다’ 사이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수치만으로 본다면 유의수준 $p<.001$ 에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어, 학습자가 교사보다 교실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실행에 더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학습자들은 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대해 더 긍정적인지 아래 면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¹²⁾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답

11) 학습자 집단과 교사 집단 사이의 평균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사용했다. Leveve의 등분산 검정 중에 유의확률(p)=.000<0.05,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값을 보인다. ($t=6.07$, t 분포에 따른 유의확률 $p=.000$)

12) 본 연구에서는 10명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수행하였다. 면담 내용 전부를 제시하지 않고, 시사점이 있는 대화 부분만 제시하기로 한다. 한편, 면담 내용 중 중국어로 된 부분은 최대한 원의미에 가깝게 전달하기 위하여 1차 번역, 2차 자문의 과정을 거쳐 원

변은 아래와 같다.

학습자 A: 학생들은 불가피하게 많은 면에서 디지털 정보를 접촉해요. 학업성취를 위해서도 이 방면의 교육이 필요해요. 그리고 생활 가운데서도 디지털 정보를 접하고 있어요. 이런 방면에서 교사들이 간단하게 디지털 리터러시를 가르쳐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학습자 C: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으로 학업을 성취할 수 있도록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서 구별할 수 없는 정보는 교사의 가르침을 통해 분별력을 키울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미래에 취업할 때도 어느 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습자 F: 외국인 유학생들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한국인보다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은 어느 면에서 언어의 차이와 단어의 제한 때문에 어떻게 한국 인터넷 잘 활용하는지 정보를 찾을 때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중략) 교사들은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학습자 J: 디지털 시대에 인터넷이 이미 사람들의 생활의 일부분이 되었는데 (중략) 그러나 현실은 외국인 유학생들은 이런 교육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어요. 교실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도입하면 좋겠어요.

심층 면담을 통해 참여자들이 학업 목적을 수행하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 학업과 연구를 병행하는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들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대부분의 정보를 얻게 된다. 학습자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얻는 것이 보편화된 시대에 불필요하고 거짓된 정보는 걸러내고, 유용한 정보를 읽고 분석하며 생산해 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를 원했다. 하지만 외국인들에

발화의 가공을 최소화하였다. 한국어로 된 부분은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법상으로 바로잡되 내용은 동일하게 제시하였다.

게 이러한 학습의 기회가 동일하게 제공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에서 교사와 학습자 각각에 대해 이루어진 심층 면담의 내용을 종합하면 교사보다 학습자들이 더욱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 차원에서 교사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기술의 활용 능력 및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교육연수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국인 학습자들에게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한국어 교육과정을 재검토하고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부합되는 교육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은 이론적 배경에서 제시한 디지털 리터러시의 구성요소를 4가지로 구분하고,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각 영역에 대한 교사와 학습자들의 인식과 그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표 9〉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학습자·교사 인식 차이

구분	학습자 (N=100)	교사 (N=30)	학습자 (N=100)	교사 (N=30)	p	t
	평균	평균	표준편차	표준편차		
1. 인터넷 활용 능력	3.67	3.90	1.026	1.322	.013*	-.877
2. 자기주도적 탐구 능력	3.26	4.17	1.116	.949	.238	-4.031
3. 비판적 인식 능력	3.33	3.67	.985	.479	.000***	-2.554
4. 미디어 참여 능력	2.90	2.53	1.087	1.279	.135	1.554
디지털 리터러시 ¹³⁾	3.29	3.67	1.054	1.007	.096	-1.477

*p<.05, ***p<.001

13) 본 연구에서 교사와 학습자의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인식값은 디지털 리터러시의 네 가지 구성요소, 즉 ‘인터넷 활용 능력’, ‘자기주도적 탐구 능력’, ‘비판적 인식 능력’, ‘미디어 참여 능력’ 각각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의 평균치를 취한다.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습자들의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인식은 평균 2.90에서 3.67 사이로, 교사들의 인식은 평균 2.53에서 4.17 사이로 나타났다. ‘인터넷 활용 능력’, ‘자기주도적 탐구 능력’ 및 ‘비판적 인식 능력’ 이 3가지 영역에서 학습자들보다 교사들의 평균이 높게 측정되었다. 다만 ‘미디어 참여 능력’ 영역에서 교사들보다 학습자들의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학습자들과 교사 모두 ‘미디어 참여 능력’에 가장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고,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한 영역은 학습자의 경우 ‘인터넷 활용 능력’, 교사의 경우 ‘자기주도적 탐구 능력’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리터러시 점수의 통계 결과, 주목할 만한 점은 ‘미디어 참여 능력’은 학습자와 교사 각각 평균이 2.90 점과 2.53점으로 다른 능력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다. 이 같은 결과는 학습자와 교사가 디지털 공간에서, 즉 인터넷상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이나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낌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과 정보 및 생각을 공유하거나 교환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디지털 리터러시를 이루는 구성요소인 ‘인터넷 활용 능력’, ‘자기주도적 탐구 능력’ 및 ‘비판적 인식 능력’에서 교사와 학습자 모두 평균 3점 이상을 나타내어 학습자 및 교사 모두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해 어느 정도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응답 결과를 분석해 보았을 때 〈표 9〉에 나타난 것과 같이 ‘인터넷 활용 능력’(p<.05)과 ‘비판적 인식 능력’(p<.001)에 있어서 학습자와 교사의 인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교사와 학습자는 ‘인터넷 활용 능력’과 ‘비판적 인식 능력’과 관련된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인식에 차이를 보인다.

2. 학습자 변인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인식과의 상관관계

이 절에서는 한국어 학습자의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태도, 언어권, 한국어 수준, 모국어(또는 제1외국어)의 디지털 리터러시 경험이 디지털 리터

러시 교육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학습자의 모국어 언어권과 한국어 수준에 따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표 10〉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언어권별, 등급별 학습자 인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Duncan
언어권	중국어권	41	4.58	.865	2.304	.105	-
	베트남어권	32	4.93	.353			
	영어권 외	27	4.70	.724			
	합계	100	4.73	.708			
등급	3급	19	4.47	.905	1.301	.279	-
	4급	19	4.78	.631			
	5급	22	4.68	.839			
	6급	40	4.85	.534			
	합계	100	4.73	.709			

위와 같이 학습자들은 언어권에 따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인식에 대해서 4.58점에서 4.93점으로 모두 4.5점 이상의 높은 점수로 응답하였다. 베트남어권 학습자의 평균이 중국어권이나 영어권 외의 학습자들에 비해 높았다. 그러나 Duncan 사후검증 결과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 학습자의 한국어 수준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3급, 5급에 비해 4급, 6급이 상대적으로 평균 점수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 또한 Duncan 사후검증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학습자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인식은 학습자의 언어권과 한국어 수준과는 큰 영향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습자와의 심층 면담에서도 언어권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응답이 압도적이었다. 반면, 통계 결과와는 반대로 대다수의 학습자들은 한국어 수준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인식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였다.

참여자 B: 먼저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쓸 수 있는데 그래서 언어의 수준은 매우 중요해요.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언어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을 알아야 되고 게다가 한국어 숙달하면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여자 G: 한국어 능력은 기초 능력이어서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면 당연히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습자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인식과 학습자의 한국어 수준과는 통계상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흥미로운 것은 심층 면담에서 10명 중 9명의 학습자들은 모두 영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는 사실이다. 결국 한국어 숙달도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인식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는 교실 상황에서 각기 다른 한국어 능력을 가진 학습자들에게 대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수행하는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한국어 학습자의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태도, 한국어 수준, 언어권, 모국어(또는 제1외국어)의 디지털 리터러시 경험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학습자 인식과 상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표 11〉 학습자 변인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인식과의 상관관계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태도	한국어 숙달도 수준	언어권	모국어 디지털 리터러시의 경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인식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태도	1				
한국어 숙달도 수준	.096	1			
언어권	.128	-.240*	1		
모국어 디지털 리터러시의 경험	.123	.258*	.346**	1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인식	.646***	.165	.091	.120**	1

*p<.05, **p<.01, ***p<.001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습자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인식과 학습자의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태도 간의 상관관계는 $r=.646(p<.001)$ 으로 정적인(+) 관계가 나타났다. 즉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습자일수록 교실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실행하는 것에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모국어(또는 제1외국어)의 경험과 한국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인식 정도와의 상관관계는 $r=.120(p<.01)$ 으로 정적인(+) 관계를 보인다. 즉 모국어(또는 제1외국어)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지식을 많이 쌓을수록 한국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인식 정도도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학습자들이 진술한 다음의 면담 내용과도 일치한다.

학습자 H: 제2언어를 습득할 때 모국어를 기초로 하여 배우기 때문에 모국어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경험하면 한국어 디지털 리터러시를 공부할 때 분명히 영향이 있습니다.

학습자 F: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모국어에서 먼저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개념이 있으면 한국어로 디지털 리터러시를 이해할 때 더 쉽고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습자 I: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모국어로 관련 개념을 공부해 본 경험이 있었다면 한국어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통계 결과와 면담 결과를 보면 모국어 디지털 리터러시를 경험하면 한국어 디지털 리터러시를 이해할 때 큰 도움이 된다. 전형길(2020)에서도 외국인 학습자들은 L1-L2 간 상호전이가 일어나는 것처럼 모국어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경험과 한국어 디지털 리터러시는 상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위의 논의에 따르면, 한국어 학습자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언어권의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국어 숙달도와 의 관계는 추후 실험 연구를 통해 확인해야 할 과제로 남는다. 또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인식은 학습자의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태도와 모국어(또는 제1외국어)의 디지털 리터러시 경험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다.

3. 학습자의 인터넷 이용시간 및 자기주도적 탐구 능력이 디지털 리터러시 인식에 미치는 영향

멀티미디어 기기 보유 정도, 인터넷 이용시간, 자기주도적 탐구 능력을 독립변수로 하고, 디지털 리터러시 점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2〉 각 변수가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β)	t	P	공차	VIF
	B	표준오차					
(상수)	.616	.325		1.894	.061		
보유 정도	.166	.089	.145	1.868	.065	.835	1.198
이용시간	.240	.092	.203	2.600	.011*	.822	1.217
자기주도적 탐구 능력	.490	.065	.566	7.486	.000***	.880	1.137
R^2		adj R^2		F		유의확률(p)	
.518		.503		34.365		.000	

* $p<.05$, ** $p<.01$, *** $p<.001$

〈표 12〉를 보면 회귀모델이 디지털 리터러시를 설명하는 정도가 50.3%로 나타나고 $p<.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을 알 수 있다. VIF로 볼 때 회귀모델의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준화계수(β)를 통해 멀티미디어 기기 보유 정도가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 요인 ‘자기주도적 탐구 능력(.566)’이 디지털 리터러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인터넷 이용시간(.203)’도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인지 요인 ‘자기주도적 탐구 능력’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심층 면담을 추가로 수행하였다.

학업과 관련하여 문제 상황을 맞닥뜨릴 때 (수업 내용이 이해가 가지 않을 때, 과제를 작성할 때 등) 그냥 넘어가는지 혹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는지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다.

학습자 D: 제가 모르거나 의문이 남는 부분이 생기면 답답하기도 하고 (중략)
저는 문제가 생기면 일단은 일반적인 정보는 네이버나 구글에 키워드 같

은 것을 검색해보요, 근데 전공지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봐도 안 나오
는 경우가 많으니까 RISS 홈페이지에서 논문을 많이 찾아보고 그런 식으
로 해 왔어요.

학습자 E: 일단 가르치는 분이 앞에 있으면 바로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은 바로 물
어보고 그게 어려우면 혼자서 찾아보고 주로 인터넷을 사용해요. 저는
구글을 많이 써요. (중략) 웬만해서는 제가 혼자 해결하는 편인데 진짜
모르겠을 때는 넘어가는 것보다는 교사와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탐구하는 능력은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이해 정도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학습자 D: 저는 상관이 있을 것 같아요. (중략)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 말
고도 내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더 탐구해 보니까 그런 호기심이나, 내가
사용하면서 구체적으로 알아가고 싶은 이런 태도가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이해에도 적용될 것 같아요.

학습자 E: 관계가 있겠죠. (중략) 확실히 스스로 탐구하는 능력이 강하면 강할
수록 그런 것을 하다 보면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이해도 늘 것 같아요.
저는 호기심이 강하니까 이것저것 해보게 돼서 확실히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위 심층 면담을 통해 학습자들이 어느 정도는 자기주도적 탐구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탐구 능력은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
한 이해 정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종합적으로 보면 학습자의 디지털
리터러시 인식의 차이는 멀티미디어 기기의 보유 정도와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인터넷 이용시간과 자기주도적 탐구 능력은 디지털 리터러
시에 유의미한 관계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시간이 많을수

록 학습자들의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이고 자기주도적 탐구 능력이 강할수록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이해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어 학습자와 교사가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한국어교육에서 한국어 학습자와 교사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관해 어떠한 인식을 하고 있는지, 교실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학습자의 어떠한 변인과 관련되어 있는지, 학습자의 인터넷 접근성과 인지 요인은 디지털 리터러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였다. 또한 학습자와 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하여 독립표본과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또 학습자의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IBM SPSS for 20.0을 활용한 기술통계, 상관관계 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정리해 보면 첫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대해 교사의 인식은 교사의 경력에 따라 다르고 교사의 경력이 적을수록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인식은 더 긍정적이었다. 학습자의 경우는 교사가 인식하는 것보다 교실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실행에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어 학습자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인식은 언어권과 한국어 수준과는 큰 상관관계가 없으나, 학습자의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태도와 모국어(또는 제1외국어)의 디지털 리터러시의 경험에 따라 달라졌

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볼 때 한국어 교실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의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고 학습자가 모국어(또는 제1외국어)의 디지털 리터러시에 익숙한 경우에는 효율적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실행해야 한다.

셋째, 인터넷 접근성과 인지 요인이 디지털 리터러시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인터넷 이용시간과 자기주도적 탐구 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이 밝혀졌다. 인터넷 이용시간이 많을수록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주도적 탐구 능력이 높고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이해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학습자와 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 평균 수준은 각 3.29와 3.67이며 하위 구성요인 중 다른 요인보다도 ‘미디어 참여 능력’은 학습자와 교사는 각각 평균이 2.90점과 2.53점으로 다른 능력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고 학습자와 교사가 디지털 공간에서, 즉 인터넷상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이나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교 교육에서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들을 위해 ‘미디어 참여 능력’ 즉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교사들에게도 이를 위한 연수와 교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와 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인식 차이, 학습자들이 디지털 리터러시에 미치는 요인을 탐구하여 앞으로 대학에서 한국어 학습자를 위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방안을 개발하는 기초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본 연구는 교사 설문결과에 대한 해석에서 심층 면담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학습자와 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인식을 집단별로 비교하고 그 결과를 기술하는 것에 그쳐, 교사 심층 면담 혹은 교실 실제 상황 분석 등의 질적 연구를 통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방안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어 학습자들이 갖추어야 할 디지털 리터러시 교

육 방안을 개발하기 위해 학습자의 요구 외에도 전문가 관점에서의 교육내용을 제언하여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긍정적 학습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도 실험으로 더 면밀하게 검증될 필요가 있다.

* 본 논문은 2021. 4. 27. 투고되었으며, 2021. 5. 13. 심사가 시작되어 2021. 6. 11.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 김나래(2020), 「디지털 리터러시 기반 학문 목적 한국어 읽기 과제 설계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시연(2015), 「유학 목적 KSL 학습자의 디지털 정보 리터러시 교육 모형 연구」, 경희사이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재희·이은희(2019),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 모형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교재 분석 및 교사 인식을 중심으로」, 『리터러시연구』 10(3), 591-620.
- 김종윤·옥현진·조재운(2020),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OECD Education 2030 역량 반영 양상 분석」, 『교육과정평가연구』 23(3), 1-22.
- 김현진·김현영·김은영·류향승·김보운·박희락·최미애(2020), 「민주시민육성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의 의미와 정규교육과정 통합 방안」,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 473-500.
- 노은희·신호재·이재진(2019), 「초·중학교 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인식 분석」, 『교육과정평가연구』 22(3), 31-60.
- 민진영(2013),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원 학업 적응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백두산(2019. 9. 25.), 국내 외국인 유학생 16만 명 넘어... 경희대 4,727명으로 최다, e-대학저널, 검색일자 2021. 6. 11., 사이트 주소 <http://www.dh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856>.
- 양순우(2010), 「외국인 유학생의 정보추구행태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은우(2014), 「인터넷 접근과 활용 및 인지요인이 디지털 리터러시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미화(2014), 「인터넷 정보를 활용한 학문 목적 한국어 쓰기의 내용 지식 구성 방안 연구」, 『시학과 언어학』 26, 145-170.
- 전영의(2018), 「중국 대학 한국어학과 한국어교육의 문제와 개선방안 연구」, 『중국학논총』 60, 1-27.
- 전재은(2016),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률에 대한 대학기관 수준의 결정 요인 분석」, 『글로벌교육연구』 8(3), 29-51.
- 전형길(2020), 「외국인 학부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경험 연구-유학생 4명의 사례를 중심으로」, 『리터러시연구』 11(4), 33-66.
- 최열(2011), 「인터넷 활용 능력이 한국어교육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어문화학』 8(2), 277-295.
- 한정선·오정숙(2006), 『21세기 지식 정보 역량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의 조작적 정의 및 하위 영역 규명』, 대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Bawden, D. (2001), "Information and digital literacies: A review of concepts", *Journal*

- of Documentation* 57(2), 218-259.
- Bawden, D. (2008), Origins and concepts of digital literacy, In C. Lankshear & M. Knobel(Eds.), *Digital literacies: Concepts, policies and practices*, New York, NY: Peter Lang.
- Bullock, D. (2004), "Moving from theory to practice: an examination of the factors that preservice teachers encounter as the attempt to gain experience teaching with technology during field placement experiences", *Journal of Technology and Teacher Education* 12(2), 211-237.
- Coiro, J., Dobler, E., & Pelekis, K. (2019), *From curiosity to deep learning: Personal digital inquiry in grades K-5*, Portsmouth, VA: Stenhouse Publishers.
- Fastrez, P. (2009, 10. 21-24.), "Evaluating Media Literacy as Competences: What can we agree on?", *Euromeduc: Second European congress on media literacy*, Bellaria.
- Friedman, T. L. (2005), "It's a flat world, after all", *The New York Times* 3, 33-37.
- Gilster, P. (1997), *Digital literacy*, New York, NY: Wiley Computer Publications.
- Kagima, L. K. & Hausafus, C. O. (2000), "Integration of electronic communication in higher education: Contributions of faculty computer self-efficacy", *The Internet and Higher Education* 2(4), 221-235.
- Weninger, C. (2019. 3. 9-12.), "English teachers' perspectives on school-based media literacy education", In Annual Association for Applied Linguistics Annual Conference, Atlanta, GA.

디지털 리터러시에 관한 한국어 학습자와 교사의 인식 연구

—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 상황을 중심으로

린천천 · 권순희

본 연구는 한국어 학습자와 교사가 디지털 리터러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에 목표를 둔다. 이를 위해 100명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와 30명 한국어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중 학습자 10명과 교사 3명에게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학습자가 교사보다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한국어 학습자들의 인식은 언어권과 한국어 숙달도 수준과는 큰 상관관계가 없었으나,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학습자의 태도와 모국어(또는 제1외국어)로 겪은 디지털 리터러시 경험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한편, 인터넷 접근성과 인지 요인이 디지털 리터러시에 미치는 영향을 보았을 때 인터넷 이용시간과 자기주도적 탐구 능력이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핵심어 디지털 리터러시,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 인식 연구, 인터넷, 자기주도적 탐구 능력

ABSTRACT

A Study of the Perceptions of Korean Learners and Teachers regarding Digital Literacy

— Focusing on the State of Korean Language Learning
for Academic Purposes

Lin Chencen · Kwon Soonhee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Korean learners and teachers perceive digital literacy. A survey was conducted with 100 Korean language learners for academic purposes and 30 Korean language teachers, among which 10 learners and three teachers were interviewed in-depth. The analysis revealed that learners perceived the necessity of digital literacy education more positively than teachers. Korean language learners' perception of digital literacy education had no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their levels of language skills and Korean proficiency. Further, learners' attitudes toward digital literacy and the experience of digital literacy in their native language were influenced. Additionally, the examination of the influence of Internet accessibility and cognitive factors on digital literacy showed that Internet use duration and self-directed inquiry ability had a significant influence.

KEYWORDS Digital Literacy, Korean Language Learners for Academic Purposes, Awareness research, Internet, Self-directed inquiry ability